

북한 해양관광자원의 평가방법과 적용*

윤인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mouthpiece@kmi.re.kr

I. 머리말

북한 관광 관련 연구는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 남북관광 활성화 방안 또는 금강산, DMZ 등 특정 지역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자연자원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마식령 등 산악관광 중심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도 동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연안에 분포한 자연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고 차츰 해양관광으로도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¹⁾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 해양관광자원의 종류와 분포를 파악하고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자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자원의 현황을 검토한 후 해양관광자원의 입지·자원·추진 여건을 평가한다. 평가대상지의 순위를 도출하여 현재 북한 관광개발정책과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첫째, 해양관광의 정의 및 유형, 해양관광자원의 정의 및 분류를 제시했다. 이는 북한

* 본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2015의 내용을 요약 및 편집한 것이다.
1) 『연합뉴스』, 『서평천국 북한』 파도타기 투어로 외국 관광객에 손짓, 2015. 9. 19.

연구에 있어 해양관광이 다소 생소한 주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작업으로 고려되었다.

둘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전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권역별로 검토한 뒤 해양관광자원을 추출했다. 기존 연구 및 보고서(최승심 외[1992]; 한국관광공사 [2004]) 등을 통해 조사된 북한의 관광자원을 파악하고, 주요 해양관광자원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셋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인자를 정의하고 측정했다. 평가인자는 연구자가 관광개발 및 북한관광, 북한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기본틀을 설계했다. 관광개발에 필요한 평가인자를 분류하여 재정의하고 각 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와 측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계된 틀은 국토, 교통, 관광, 경제(개발), 북한 전문가 9명의 자문을 거쳤으며, 자문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조정되었다.

넷째, 다시 표적화된 전문가 12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방법(AHP)을 통해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도출했다. 이는 관광대상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의 중요도가 다르므로,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개별 연구자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가대상의 입지여건, 자원여건, 추진여건을 조사했다.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에 대한 자료는 ‘북한지역정보넷(www.cybernk.net)’을 이용했다. 북한지역정보넷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행정구역, 자연지리, 인문지리,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 사진, 지도 등을 게시한 웹사이트이다. 추진여건에 관한 자료는 선행연구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했다.

여섯째, 평가대상의 여건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인자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 AHP 조사 결과인 가중치를 곱해 순위를 도출했다. 평가인자의 등급인 상, 중, 하에 각각 3, 2, 1점을 매긴 후에 AHP 조사를 통해 나온 가중치를 각 점수에 곱해 총점을 도출했다. 평가대상지 개발 우선순위는 총점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부터 정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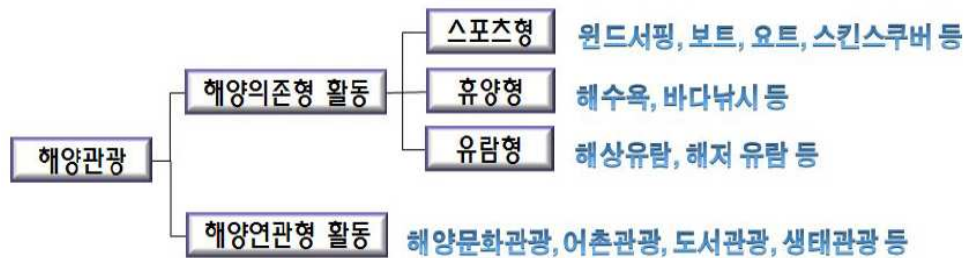
일곱째, 평가순위별 대상지와 현재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를 비교하면서 북한의 관광개발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정리했다.

III. 북한 해양관광자원 현황

해양관광(marine tourism)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관광)이 해역과 연안에 접한 공간(해양)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해양관광에 포함된다.²⁾ 해양관광은 해변, 해상, 해중, 해저를 비롯해 해양 내 육지인 도서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해안관광보다 넓은 개념이기도 하다. 활동 유형에 따라 해양에 의존하는 형태와 해양에 연관되는 형태로 나뉜다(그림 1 참고).

해양관광자원은 해역과 연안에 존재하면서 해양의존형 활동 및 해양연관형 활동에 이용되는 관광자원을 의미한다.³⁾ 관광자원은 크게 유형자원과 무형자원 또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대별되며 주로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산업자원 등으로 구분된다.⁴⁾ 그런데 산업이 발전할 수록 교육, 스포츠·레크레이션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매력물인 관광대상을 개발하는 창조형 자원⁵⁾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광대상시설 또는 위락자원까지 고려하여 해양관광자원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그림 1] 해양관광의 유형



자료: 김성귀(2007), p.47; 국토해양부(2008), p.5.

2) 김성귀, 『해양관광론』, 현학사, 2007, p.37.

3) 위의 책, p.40.

4) 이상춘, 『관광자원론』, 백산출판사, 2014, pp.33~38.

5) 김성귀, 『해양관광론』, p.52.

〈표 1〉 해양관광자원의 분류

유형	설명	구분	예시	비고
자연자원	해양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형태의 관광자원	경승지	일출(몰)지, 도서, 기암괴석, 해중경관	생태관광
		해안자원	해수욕장, 갯벌	
		해양동식물	물범, 수달, 고래, 산호초	
		보호구역	철새도래지	
		기타 자연현상	바다길 갈라짐 등	
사회·문화자원	연안 지역 고유의 생활양식, 가치관, 문화, 역사를 반영한 자원	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풍속	어구어법	
		향토음식	지역고유 바다음식, 특산물	
		향토축제	전통축제	
위락자원	연안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에 예술, 예능, 스포츠, 교육 등의 목적을 접목시킨 시설	행사	테마형 축제, 스포츠 대회	
		전시·관람	수족관, 전시관, 박물관	
		스포츠·체육	마리나, 요트장, 수상레저사업장, 낚시터, 유어장	
산업자원	해양을 거점으로 하는 산업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항구	상항, 군항, 어항, 공업항 등	생태관광
		어장	양식산란장, 회유로	
		기타 산업시설	갑문, 방조제	

자료: 김성귀(2007), p.41, p.42, p.52; 이상춘(2014), p.33, p.38 등 참고하여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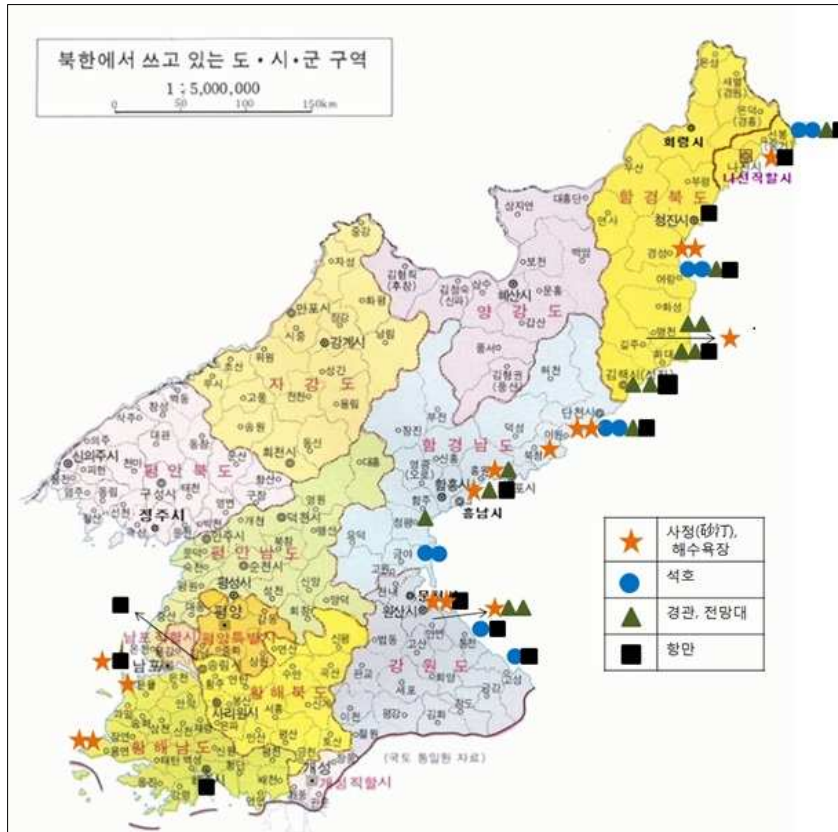
중국과 북쪽 경계를, 한국과 남쪽 경계를 접하고 있는 북한의 지리적 위치상 해양관광자원은 동쪽 및 서쪽 양측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내륙인 자강도, 양강도, 황해북도, 평양시 등을 제외하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남포시의 해안 등이다.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의 현황과 분포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해양관광자원은 해안선이 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등 동해안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해수욕장과 해안경관이다.

〈표 2〉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현황

지역	사경(沙汀), 해수욕장	석호	경관, 전망대	항만
경성	용현, 원사대	-	-	-
고성	-	삼일포	-	고성항
금야	-	상포, 하포	-	-
길주	남대천하구	-	-	-
김책(성진)	-	-	쌍포기암, 청학단	김책항
나진	비파	-	-	나진항
남포	와우도	-	-	남포항
명천	-	-	송도, 해암대	-
북청	속후	-	-	-
선봉(웅기)	-	만포, 굴포	적도	선봉항
송림	-	-	-	송림항
안변	학포	-	국도, 원사대	-
어랑	-	장연호, 무계호	수중대	어랑항
용연	몽금포, 구미포	-	-	-
은율	서해	-	-	-
원산	송도원, 명사십리	-	-	원산항
이원	송단/남송정, 유선대	군선연, 서호	적벽, 학사대	이원항
정평	-	-	죽도	-
청진	-	-	-	청진항
통천	-	시중호	-	통천항
해주	-	-	-	해주항
홍원	경포	-	영공대	-
화대	-	-	국화대, 무소단	사포항
흥남	마전	-	귀경대	흥남항

상기 지역 정보를 토대로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평가대상지를 선정했다. 금야, 길주, 북청, 송림, 안변, 정평, 홍원, 화대 등은 가까운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이 부족하거나, 알려진 바가 없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대상지에서 제외시켰다. 김책, 청진, 해주 등은 잘 알려진 지역이기는 하지만 관광보다는 항만, 제철 등 산업적인 측면이 중시되어 제외했다. 은율의 경우, 북한 5대 명산에 속하는 구월산과도 가깝지만 해안자원에 대한 정보가 적어 그보다는 인근에 있는 휴양지로 알려진 과일군으로 대체했다. 나진과 선봉은 ‘나선’으로 통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보대상지는 함경북도에서 시작해서 시계방향 순서로 나선, 경성, 명천, 마전(함흥), 원산, 통천, 고성, 용연, 과일, 남포 등 11곳으로 좁혀졌다.

[그림 2]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분포



이 후보명단에 추가로 5곳을 선정했다. 하나는 북한이 국제녹색시범구로 내걸고 있는 황해남도 강령이다. 유명한 해안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경제특구로 구상하고 있으므로, 그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포함시켰다. 나머지 4곳은 평안도에 위치한 도서지역이다. 기존에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으로 알려진 지역 중 평안도는 거의 없다. 관련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바닷새번식지(자연보호구)가 있는 온천, 선천, 정주, 철산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상 선정된 평가대상지 16곳에 대해, 앞서 분류한 해양관광자원의 종류에 따라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평가대상지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구분	지역	해양 관광 유형	자연자원		사회·문화 자원	위락 자원	산업 자원	위치
			해안 자원	해양 동식물	특산물/사적지			
1	나선	휴양	비파도 선봉알섬 (등대섬)	재갈매기 가마우지 바다오리 뽕주둥이 등 [우암물개]	굴/우암 원시 유적	영랑호텔 (카지노)	[나진항] 선봉항 나진/선봉/우암 수산사업소	함북 나선시 조선만, 우암리 서남쪽
2	경성	경승 휴양	용현리 (용양포) 온천*	-	명태 임연수 낙지 참미역	휴양소 체육시설 영화관	-	함북 경성군
3	명천	경승 휴양 유람	온천	칠보산 자연보호구 (각종희귀식물) 피조개 보호구	미역 다시마 돌김 피조개	휴양소 숙박시설	명천 천해양식사업소 포항수산사업소 수출품수산사업소	함북 명천군·화대군 북춘리·황진리
4	이원	경승 휴양	송단 학사대	-	가리비	휴양소	이원항 이원수산사업소 이원천해양식사업소 송단수산사업소 이원선박수리공장	함남 이원군
5	마전	휴양 유람	마전	-	명태 도루묵 정어리 오징어 콩치 가자미 까나리	유원지 휴양소 야영소 놀이시설 낚시터 화초원 민속놀이터 문화시설 체육시설	홍남수산사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함남 함흥시 홍남구역 마전리
6	원산	경승 휴양 유람	송도원 명사십리	-	명태 정어리 가자미 정어	국제소년 야영장 유원지 선착장 야외극장 케이블카 수족관 물놀이장 경마장 동물원 화초원 식물원	원산조선소 원산항	강원 원산시
7	통천	경승 휴양 생태 도서	시중호 총석정 통천알섬	큰고니 바다가마우지 갯가마우지 바다오리 팍새 검은머리갈매기	명태 가자미 오징어 등	요양소 온천장 일광욕장 유선장 낚시터	통천여항	강원 통천군 패천리·금란리

<표 3>의 계속

구분	지역	해양 관광 유형	자연자원		사회· 문화 자원	위락 자원	산업 자원	위치
			해안 자원	해양 동식물	특산물/ 사적지			
8	고성	경승 휴양 유람	해금강 삼일포 금강장 형제섬 온천	큰고니	문어 섭조개털게/ 불교 사찰	휴양소 전망대 약수터 휴양림 산장 온천장 음식점 영화관	고성항 고성수산사업소	강원 고성군 (외금강)· 금강군 (내금강)
9	강령	생태	대수압도 소수압도	신천웅 큰고니 흰두루미살이터	다시마 김, 굴 섭조개	-	천해양식사업소	황남 강령군
10	용연	휴양	몽금포 구미포 사구	두루미살이터 장산곶 식물보호구	까나리 해삼 생복/ 인당수	-	몽금포 수산사업소	황남 용연군
11	과일	휴양	금산포 용수포 진강포	노랑부리저어새	삼치 까나리 멸치	-	천해양식사업소	황남 과일군
12	남포	경승 휴양 유람	와우도	-	광어 홍어 가자미 삼치	뱃놀이장 문화·체육 시설	남포항 서해갑문 남포수산사업소 남포조선소 연합기업소	평남 남포시 · 대동강 하구
13	온천	생태 도서	덕도 평남온천	뿔주둥이 저어새 갈매기	소금	-	귀성제염소 온천수산사업소 등	평남 온천군
14	선천	생태 도서	납도 (나비섬)	호군이 꽂새 가마우지 바다뿔주둥이 노랑부리백로	멸치 까나리 전어 송어	-	-	평북 선천군
15	정주	생태 도서	운무도 (큰우물섬)	재갈매기 검은꼬리갈매 노랑부리백로 검은날저어새	전어 까나리 송어	-	정주수산사업소	평북 정주시 애도동
16	철산	생태 도서	삼차도/ 참차도	재갈매기 꽂새 뿔주둥이 컬새 바다가마우지	전어 멸치 송어 새우류 조개류	-	철산수산사업소	평북 철산군 가도 노동지구

주: * 북한에서 가장 많은 온천이 있는 지역(25개).
자료: 한국관광공사(2004); 북한지역정보넷(<http://www.cybernk.net>, 검색일: 2015. 7~10)을 토대로 저자가 작성함.

IV. 북한 해양관광자원 평가

1. 평가인자의 구성

평가들은 김상무(2011)의 연구에서 경상북도 유교문화 관광자원을 평가한 틀을 인용한 것이다. 북한 자료 접근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전문가 9명의 자문을 바탕으로 북한 및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표 4~5 참고).

북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평가인자의 중요도에 대해서 국토, 교통, 관광, 경제(개발), 북한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계층분석방법(AHP)을 통해 평가인자의 중요도를 쌍대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된 값을 가중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했다(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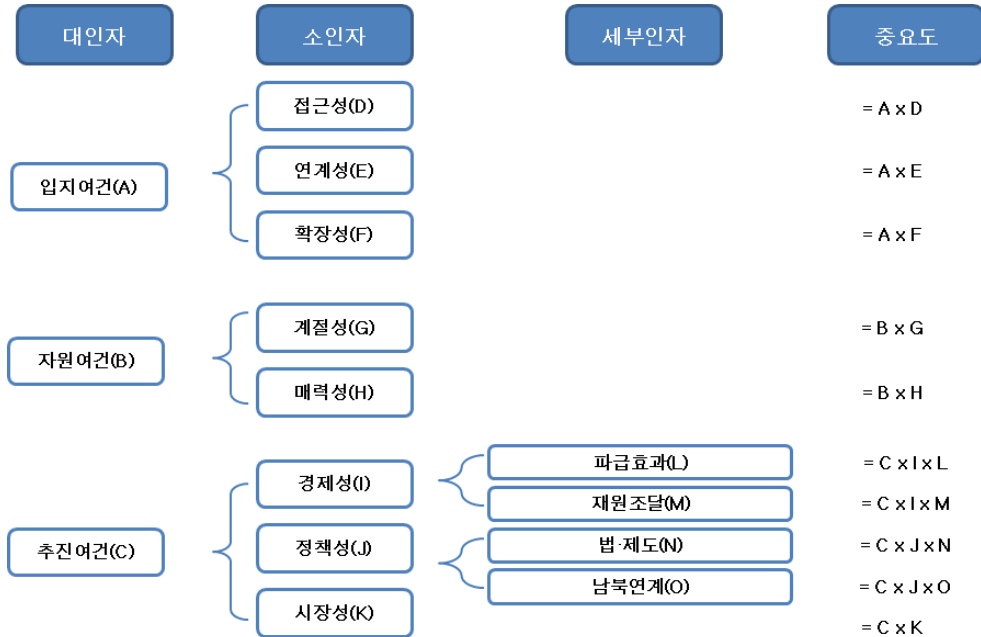
〈표 4〉 북한 해양관광개발 평가인자 정의 및 측정

대인자	정의	소인자	측정 단위	측정 기준	
입지 여건	관광자원이 위치한 장소의 환경을 둘러싼 여건	접근성	교통수단	주요 공항, 항만, 철도에서의 접근 가능 시간	
		연계성	주변자원	15km 내 보완기능을 가진 관광자원 및 시설	
		확장성	개발면적	예상되는 관광지 지구의 지정 면적	
자원 여건	관광자원 자체의 특성 및 이용 여건	계절성	이용계절	자원의 4계절 이용 가능 여부	
		매력성	자원의 질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및 관련 시설의 다양성 여부	
추진 여건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계약하는 여건	경제성	내부	파급효과	지역개발, 고용증대, 개혁개방, 외자유치 등 개발효과의 파급규모
			외부	재원조달	한국, 주변국, 국제사회 등의 재원조달 가능성
		정책성	내부	법·제도	경제특구, 군사시설 등 관련 정책 및 법규
			외부	남북연계	한국의 (대북)정책과의 부합성
시장성	관광수요	주변국 인접성, 기존에 형성된 관광지 이미지			

<표 5> 북한 해양관광자원 평가인자 설명 및 구분

대인자	소인자		설명	구분	등급
입지 여건	접근성	교통수단	주요 공항, 항만, 기차역에서의 접근 시간	1시간 내 3종류로 접근 가능	상
				1시간 내 1~2종류로 접근 가능	중
				1시간 내 접근 곤란	하
	연계성	주변자원	15km 내 보완기능을 발휘하는 (해양 외) 관광자원의 유무	15km 내 3개소 이상	상
				15km 내 1~2개소	중
				15km 내 없음	하
	확장성	개발면적	예상되는 관광지 면적	30만㎡ 이상	상
				3만㎡ 이상 30만㎡ 미만	중
				3만㎡ 미만	하
자원 여건	계절성	이용계절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절의 수	4계절 이용 가능	상
				2~3계절 이용 가능	중
				1계절 이용 가능	하
	매력성	자원의 질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및 관련 시설의 종류	4종 이상 자원/시설 보유	상
				2~3종의 자원/시설 보유	중
				1종의 자원/시설 보유	하
추진 여건	경제성	파급효과	지역개발, 고용증대, 개혁개방, 외자유치 등 기대효과의 파급규모	전국 규모	상
				도 단위 규모	중
				시 단위 규모	하
		재원조달	한국, 주변국, 국제사회 등의 재원조달 가능성	2개국 이상 또는 국제사회 지원 가능성	상
				한국 또는 주변 1개국 지원 가능성	중
				외부 지원 가능성 낮음	하
	정책성	법·제도	중앙급, 지방급 경제특구, 군사지역 지정 여부	중앙급, 지방급 경제특구	상
				특구, 군사지역이 아닌 경우	중
				군사시설 등 지정	하
		남북연계	한국의 (대북)정책과의 부합성	우선순위에 있고 서로 부합함	상
				조정을 통해 부합시킬 수 있음	중
				우선순위에 없고 조정 어려움	하
시장성	관광수요	주변국 인접성, 기존에 형성된 관광지 이미지 등	인접성, 이미지 모두 높음	상	
			인접성 또는 이미지만 높음	중	
			인접성, 이미지 모두 낮음	하	

[그림 3]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인자의 중요도(가중치) 산출 방식



2. 평가인자의 중요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평가하는 요소의 중요도를 자원여건(41.2%), 입지여건(35.9%), 추진여건(22.9%) 순으로 고려했다. 자원여건 못지않게 입지여건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입지여건은 접근성(55.7%), 확장성(26.2%), 연계성(18.1%) 순으로 나타나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확장 가능한 주변 면적, 연계 가능한 다른 자원의 순으로 고려되었다.

자원여건은 매력성(68.6%), 계절성(31.4%)의 순으로 나타나 자원의 다양성이 사계절 이용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표 6> 북한 해양관광자원 평가인자의 중요도

(단위: %)

대인자	값	소인자	값	세부인자	값	최종가중치
입지여건(A)	35.9	접근성(D)	55.7			20.00
		연계성(E)	18.1			6.50
		확장성(F)	26.2			9.41
		D+E+F 합계	100			
자원여건(B)	41.2	계절성(G)	31.4			12.94
		매력성(H)	68.6			28.26
		G+H 합계	100			
추진여건(C)	22.9	경제성(I)	37.0	파급효과(L)	43.8	3.71
				재원조달(M)	56.2	4.76
				L+M 합계	100	
		정책성(J)	37.1	법·제도(N)	41.2	3.50
				남북연계(O)	58.8	5.00
				N+O 합계	100	
시장성(K)	25.9			5.93		
A+B+C합계	100	I+J+K 합계	100			100

추진여건은 정책성(37.1%)과 경제성(37%)이 비슷하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시장성(25.9%)이 고려되었다. 관광개발에 경제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성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성은 재원조달(56.2%), 파급효과(43.8%) 순으로, 정책성은 남북연계(58.8%), 법·제도(41.2%) 순으로 고려되었다.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북한 내부의 법·제도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조달 가능성과 외부(남한)와의 연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평가대상지 순위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평가대상지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16개 지역이다. 연구자는 이 지역에 대해 상기 평가인자 기준을 따라 상-중-하로 등급을 매기고 각각 3-2-1점을 부여했다. 각 점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설문 결과로 도출된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했다.⁶⁾

16개 지역에 대해 총점(만점 3점)을 기준으로 도출된 순위는 <표 7>과 같다. 금강산이 있는 고성, 남포, 원산(2.94점)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나선(2.71점), 칠보산이 있는 명천(2.7점)도 높은 점수를 차지했고 원산과 고성 사이에 위치한 통천(2.39), 북한 최대 온천지대인 경성(2.36점), 휴양소가 많은 이원(2.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마전(2.32)과 과일(2.23), 강령(2.21)과 용연(2.02)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정주(1.98), 선천·온천·철산(1.78 점)은 인근에 바닷새번식지(자연보호구)로 지정된 섬이 있어 생태·도서 관광 잠재력이 기대되지만 입지·자원·추진여건상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표 7> 평가대상지의 해양관광자원 평가

구분	지역	입지 여건			자원 여건		추진여건					총점	순위
		접근성	연계성	확장성	계절성	매력성	경제성		정책성		시장성		
							파급 효과	재원 조달	법 제도	남북 연계	관광 수요		
	가중치	0.200	0.065	0.094	0.129	0.283	0.037	0.048	0.035	0.050	0.059	3.00	
1	나선	3	2	2	2	3	3	3	3	3	3	2.71	4
2	경성	3	2	3	3	2	2	1	3	1	2	2.36	7
3	명천	3	2	3	3	3	2	1	3	1	3	2.70	5
4	이원	3	1	2	3	3	1	1	2	1	1	2.35	8
5	마전	3	1	3	2	3	1	1	2	1	1	2.32	9
6	원산	3	2	3	3	3	3	3	3	3	3	2.94	1
7	통천	2	1	3	3	3	1	1	3	2	2	2.39	6
8	고성	3	2	3	3	3	3	3	3	3	3	2.94	1
9	강령	3	1	2	3	2	1	1	3	2	2	2.21	11
10	용연	2	1	3	3	2	1	1	2	1	2	2.02	12
11	과일	3	2	3	3	2	1	1	2	1	1	2.23	10
12	남포	3	2	3	3	3	3	3	3	3	3	2.94	1
13	온천	2	1	1	3	2	1	1	2	1	1	1.78	14
14	선천	2	1	1	3	2	1	1	2	1	1	1.78	14
15	정주	3	1	1	3	2	1	1	2	1	1	1.98	13
16	철산	2	1	1	3	2	1	1	2	1	1	1.78	14

6) 유의할 점은 대상지 간 점수 차이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표 5>의 평가인자를 구분할 때 편의상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고 3-2-1점을 산정했지만, 사실상 상-중-하 간의 점수 차이는 3-2-1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점수는 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방편일 뿐, 평가대상지 간의 절대적 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표 8>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총점)

순위	지역	총점
공동1	고성	2.94
	남포	2.94
	원산	2.94
4	나선	2.71
5	명천	2.70
6	통천	2.39
7	경성	2.36
8	이원	2.35
9	마전	2.32
10	과일	2.23
11	강령	2.21
12	용연	2.02
13	정주	1.98
공동14	선천	1.72
	온천	1.72
	철산	1.72

주: 총점 만점: 3.00, 공동순위 '가나다' 순.

<표 9>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입지여건)

순위	지역	점수
공동1	경성	1.01
	고성	1.01
	과일	1.01
	남포	1.01
	명천	1.01
7	원산	1.01
	마전	0.95
8	나선	0.92
공동9	강령	0.85
	이원	0.85
11	경주	0.76
공동12	용연	0.75
	통천	0.75
공동14	선천	0.56
	온천	0.56
	철산	0.56

주: 입지여건 만점: 1.08, 공동순위 '가나다' 순.

<표 10>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자원여건)

순위	지역	점수
공동1	고성	1.24
	남포	1.24
	명천	1.24
	원산	1.24
	이원	1.24
	통천	1.24
공동7	나선	1.11
	마전	1.11
공동9	강령	0.95
	경성	0.95
	과일	0.95
	선천	0.95
	온천	0.95
	용연	0.95
	정주	0.95
	철산	0.95

주: 자원여건 만점: 1.24, 공동순위 '가나다' 순.

<표 11>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추진여건)

순위	지역	점수
공동1	고성	0.69
	나선	0.69
	남포	0.69
	원산	0.69
5	명천	0.45
공동6	강령	0.41
	통천	0.41
8	경성	0.40
9	용연	0.32
공동10	과일	0.26
	마전	0.26
	선천	0.26
	온천	0.26
	이원	0.26
	정주	0.26
	철산	0.26

주: 추진여건 만점: 0.69, 공동순위 '가나다' 순.

입지여건(만점 1.08점)을 기준으로 보면 총점 상위에 있는 경성, 고성, 남포, 명천, 원산은 물론 총점 중하위권에 있는 과일이 공동 1위(1.01점)로 나타났다. 자원여건(만점 1.24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성, 남포, 명천, 원산, 이원, 통천(1.24점)이 1위를 차지했다. 추진여건(만점 0.69점)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곳은 고성, 나선, 남포, 원산(0.69점)이다. 모두 총점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입지여건, 자원여건, 추진여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고성, 남포, 원산이 총점으로도 공동 1위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지역은 총점과 세부여건 점수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경성, 나선, 명천 같은 지역이다. 경성은 입지여건(1위)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여건(9위)과 추진여건(8위)이 하위에 머물러 총점(7위)으로 중간에 위치했다. 나선은 평가대상지 중에서 입지여건(8위)과 자원여건(7위)은 중간 정도였지만, 추진여건(1위)이 우수하여 총점(4위) 기준으로 상위권에 들어갔다. 명천의 경우는 반대 상황이다. 입지여건(1위)과 자원여건(1위)이 우수하지만 추진여건(5위)이 중간 정도였고 총점(5위) 기준으로 나선의 뒤를 이었다.

이는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에 고려되어야 할 개별 요소, 즉 입지여건, 자원여건, 추진여건이 모두 중요하지만 각 요소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매긴 결과는 각 여건만 보았을 때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즉,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시에는 어느 대상지의 입지여건이나 자원여건이 훌륭하다고 해도 추진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개발 후순위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이 논문은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검토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입지·자원·추진여건을 평가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1순위인 고성(금강산), 남포, 원산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특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4년 6월 11일에 최고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설정하고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관광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선(4위)은 경제무역지대로, 명천(5위)은 칠보산 관광특구계획에, 통천(6위)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관광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광개발정책에서 주목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경성, 이원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는 각각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 관광특구 개발에서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입지·자원여건과 추진여건에 차이가 나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양지역인 경성(7위)과 마전(9위)은 입지·자원여건에 비해 추진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녹색시범구로 설정된 강령(11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지역들은 북한이 관광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1~4위 지역에 이어 차순위 관광개발 지역으로 삼되, 지역 전반을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강령국제녹색시범구에 대해 유기농업·온실재배, 축산, 해삼·전복 양식, 풍력·조력·태양열·바이오연료 개발, 해수욕장·골프·호텔 등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여부가 다른 지역에 참고할 만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 접근의 한계를 갖고 있다. 각 지역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고 현재로서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간접 경험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여러 지역을 놓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을 방문해 본 사람도 많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출신지역 외에 다양한 지역을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현재 이용 가능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직·간접 경험을 통한 정보를 넣기만 하면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평가틀을 구성했다는 데 있다. 연구자가 해양관광자원의 평가인자를 정량화하여 가급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⁷⁾ 특히 파급효과, 자원조달 가능성과 같은 경제적 추진여건 등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7) 연구자는 '북한지역정보넷'을 비롯한 북한의 지역 정보를 토대로 입지여건 및 자원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수집했으나 지면 관계상 다 담지 못했다.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김상무, 『관광개발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2011.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2007.
이상춘, 『관광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2014.
최승심 외,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1992.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자원』, 2004.

<웹사이트>

북한지역정보넷(<http://cybernk.net>).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